

(1. 근대혁명의 시대) 구미제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또, 그 배경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유럽의 동향)

17세기부터 18세기 유럽에서는 각국이 극심하게 다투었습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번영하고 있었지만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대항하여 강국으로서 대두하였고 이어서 영국도 급속하게 국력을 키워 18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최강국의 지위를 다투며 몇 번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미합중국이 독립하는 등 각국에서 새로운 정치 구조나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영국혁명)

영국 정치의 중심은 국왕과 의회였지만 17세기 후반에 국왕은 의회를 무시한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 반대하는 의회와의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회측이 크롬웰의 지도로 승리하고 국왕을 처형하여 공화제를 시작했습니다. (청교도 혁명)

크롬웰 사후, 영국은 왕정으로 되돌아갔지만 다시 국왕이 전제를 행했기 때문에 1688년부터 89년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국왕이 새롭게 뽑혀 권리장전이 정해졌습니다. 이리하여 세계최초의 입헌군주제와 의회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타국에도 확산되어 갔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18세기에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식민지인들이 본국의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이 재정을 압박했기 때문에 새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했지만 식민지측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고 외치며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이것을 탄압했기 때문에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고 식민지측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아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민주권, 연방제, 삼권분립을 축으로 하는 합중국 헌법을 정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독립전쟁 사령관이었던 워싱턴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가 탄생했습니다만, 독립 직후의 미국은 아직 노예제가 지속되었고 대륙 동부의 13주만을 영토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계몽사상)

이즈음의 유럽에서는 뉴턴 등이 천체 운동 법칙을 해명하여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한편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가 등장했습니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은 국왕의 권위의 제한을 주장하며 인민의 정치 참가 형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계몽사상은 책이나 신문, 잡지, 백과사전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미국 독립 선언이나 후의 프랑스 혁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절대왕정)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에서는 국왕이 정치 권력의 전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열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절대왕정) 또 언론은 규제되고 신분에 의한 빈부차가 커져 제 1신분(성직자)와 제 2신분(귀족)은 면세 등의 특권을 갖고, 세금 부담은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제 3신분(평민)이 주로 도맡게 되어 버렸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을 계속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유효한 대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계몽사상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일부 귀족이나 평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러던 중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해 전비를 지불하기 위해 1789년에 국왕이 제1, 2 신분에도 과세하려고 의회를 개최하자 파리와 지방에서 사람들이 궐기하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3부회의 평민의원들은 새롭게 국민의회를 만들어 신분 특권을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의 불가침 등을 주장하며 인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확산을 무서워하는 주위의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적국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받은 국왕을 폐위한데 이어 처형해 공화제를 실시하고 징병제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또 경제를 통제하는 등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 사회의 조직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란을 일어나 불안정한 정치가 지속되는 중에 외국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군인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하고 혁명의 종결을 선언하고 1804년에 황제에 취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이외의 유럽 제국을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자신의 일족을 주변국의 왕으로 만들어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또 법 아래 평등, 경제 활동의 자유, 가족의 존중을 규정한 민법(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도 복속시키기 위해 각국에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반한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가서 패배하고 또 프랑스 지배에 반대하는 각지의 민족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패전을 계속해 나폴레옹의 지배는 1815년에 끝났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다시 혁명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프랑스 혁명은 출신이나 국적을 묻지 않고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보편적인 인권을 이상으로 내세운 혁명이었기 때문에 세계 속 억압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 산업혁명과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은 구미제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산업혁명)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에는 인도로부터 손으로 짠 면직물이 수입되었고 가볍고 예뻐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면직물을 자국에서 만들기 위한 기술개량을 진행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영국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면직물은 공장에서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내 뿐 아니라 대서양 삼각무역 상품이 되어 후에는 인도를 향해서도 수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제철, 기계, 철도, 조선, 무기 등의 산업도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장에서의 기계생산 등의 기술 향상에 의한 경제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산업혁명의 결과, 생산의 밑천이 되는 자본을 가진 자(자본가)가 경영자가 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노동자)를 공장에서 고용하여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하면서 자유롭게 생산과 거래를 하는 구조가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에 의해서 물자가 풍부하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노동자가 넘쳐나 주택이 부족하고 공중위생 측면에서도 불충분하였습니다. 실업도 많아, 노동자는 직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또 그 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라는 사상도 씨앗이 뿌려져 마르크스의 저작 등에 의하여 노동자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과 독일)

타국보다도 빨리 산업혁명을 실현하고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영국은 19세기에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수도인 런던은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었고 철도망은 전국에 확산되었고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도 열었습니다. 영국은 또 강력한 해군을 배경으로 하여 세계 각지에 상인이나 외교관을 파견하고 통상이나 외교관계를 넓히는 한편, 식민지도 확대하였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의회정치 아래에서 양당제가 정비되었고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서서히 전기가 보급되었고 화학도 발달하였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의회가 개설되어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실현됨과 동시에 의무교육도 보급되어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강해졌고, 국가로서 통합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프로이센)의 성장이 주목할 만하여 철혈재상이라 불리는 비스마르크의 지도 하에 1871년에 통일 제국을 이루고 산업도 발전하여 영국을 잇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럽 최대의 사회주의 정당도 태어났지만 정부는 이를 탄압하였습니다.

(3. 러시아와 아메리카의 발전) 러시아와 아메리카는 어떻게 발전해 갔던 것일까요?

(러시아의 확대)

17세기 초까지 러시아는 영토는 우랄 산맥 주변 뿐이었고, 다른 유럽 제국과 관계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 후 러시아가 급속하게 동서로 영토를 확대하고 발트해로부터 시베리아까지 진출하여 18세기에는 일본 근해에도 통상을 요구하며 함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러시아는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채택하고 흑해와 지중해 연안, 중앙 아시아, 또 중국 동북부로 진출하게 되면서 똑같이 중국에 세력을 뻗으려고하고 있던 일본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9세기말부터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 한편으로 20세기 초까지 헌법이나 의회가 없이 황제의 전제정치가 이어지고 또 신분이나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정치와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다른 유럽 제국에 비하여 처진 면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성장)

18세기 말에 독립한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서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농업과 공업이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전쟁과 토지 구입 등으로 영토도 급속하게 서쪽으로 확대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미국은 또 동아시아에도 관심을 향해 일본에 페리 등을 사절로 보내어 개국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미국은 국내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영국에 면화 수출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것은 남부에서의 노예노동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노예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가가 서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주에서 노예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의하여 나라를 양분하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때문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 남부 모두 커다란 피해를 입은 후, 북부가 링컨 대통령의 지도 하에 내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남북전쟁 후의 미국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로부터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공업도 한층 발전하여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국가가 되었지만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등의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또 국제 정치에서는 유럽과의 관계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중남 아메리카에서는 대항해시대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광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만 19세기 초에는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4. 유럽의 아시아 침략) 구미제국은 어떻게 아시아를 침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럽과 아시아의 역학관계)

16~18세기 유럽 제국은 아시아의 대국에 대해 크리스티교 포교나 부를 획득하기 위한 의욕을 갖고 있었지만 국력에서는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결과, 유럽은 아시아에 대해 군사력에서 우세하게 되어 전쟁에 의해 상대를 종속시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로부터 차나 비단, 면직물,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있었지만, 대신하여 공업제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의 선두에 선 것이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입니다.

(아편 전쟁과 중국의 반식민지화)

18세기 중국(청)은 구미와 무역을 광저우 1개 항구에 제한해 두고 영국은 면직물 등의 공업 제품을 팔리지 않아 청과의 무역은 큰 적자였습니다. 이 대책으로 영국은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고 인도에서 아편(마약)을 재배시켜 청에 가져가 팔고 차 등을 사오려고 했습니다. (삼각무역).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청이 엄하게 취급하자 영국은 1840년에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습니다. (아편 전쟁). 1842년의 강화조약(난징조약)에 의하여 영국은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열고 홍콩을 손에 넣은 후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국에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청에 관세 자주권이 없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청이 전비나 배상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거운 세금을 걷기도 하여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의 난이 각지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런 혼란의 속에서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다시 청을 공격하여 무역 일체의 자유화와 크리스티교 포교를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의 식민지화)

영국이 인도에 갖고 있던 지배지는 처음에는 몇 개 가량의 항구 뿐이었지만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지배지역을 내륙으로 크게 확대해갔습니다.

그 결과 산업혁명 후 영국의 싼 면직물이 대량으로 유입하여 전통적인 인도의 면직물업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은 인도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 반감을 가진 인도인들이 늘어났고, 1857년에는 인도인 병사의 영국인 상관에 대한 반란이 각지에서 번져 인도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진압한 영국은 실권을 없던 인도 황제를 퇴위시키고 영국 국왕을 황제로 세워 인도를 식민 지배의 거점으로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스페인이나 네덜란드가 식민지화를 진행해가고 있었습니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도 세력을 넓혔기 때문에 19세기에는 동남 아시아의 대부분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5.개국과 불평등조약) 에도막부는 어떻게 개국하였고 구미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페리 내항)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아편전쟁 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중에는 고래 기름 확보를 위해 태평양에서 포경을 행했고 일본에 표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로의 중계지로 삼기 위해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를 파견하였습니다. 페리는 1853년, 4척의 군함을 이끌고 우라가 (가나가와현)에 내항하였습니다. 막부의 관료들은 나가사키에 가도록 요구했습니다만 페리는 우라가에 정박하고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국서를 막부에 보냈습니다.

다음 해에 회답할 것을 약속했던 막부는 국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선례를 깨고 다이묘의 의견을 묻고 조정에도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정과 다이묘의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막부는 다시 내항해 온 페리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시모다와 하코다테의 2개 항구를 열고 미국 영사를 시모다에 둘 것, 미국 배에 식료나 물, 석탄 등을 공급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쇄국정책은 무너지고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한 통상조약)

1856년, 미국 총영사로서 시모다에 온 해리스는 막부에 통상조약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막부는 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해리스와 교섭해서 조약안을 작성하고 조정에 허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했던 조정은 조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타이로가 된 히코네 번주 이이 나오키는 1858년에 청이 다시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졌다는 것을 알고는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하코다테,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의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지에 설치한 거류지에서 미국인이 자유로운 무역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막부와의 연락이나 교섭을 행하는 공사를 에도에 두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약은 미국에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관세자주권이 없는 등 일본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막부는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거의 같은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안세이 5개국 조약). 이후 각국의 공사가 에도에 부임하고 각각 개항지에는 외국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6. 존왕양이운동과 개국의 영향) 개국에 의해서 일본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요?

(존왕양이운동의 고조)

막부가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천황을 모시자는 존왕론과 외세를 배척하자는 양이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존왕론과 양이론이 결합하여 막부 정책에 반대하는 존왕양이운동이 활발해 졌습니다.

이이 나오키는 막부 정책에 반대하는 다이묘, 쿠게, 존왕양이파 한사를 처벌하고 억누르고자 하였습니다. (안세이의 대옥) 그러나 나오키는 1860년 그에 반대하는 미토 한의 한사들에게 암살당하였습니다. (사쿠라다몬의 변). 그 때문에 막부는 조정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권위를 되살리려는 공무합체책으로 전환하고 천황의 여동생을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개국의 경제적 영향)

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개시에 의해 일본 경제는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부터는 모직물, 면직물, 무기, 함선 등이 수입되었고, 일본으로부터는 생사, 차 등이 수출되었습니다. 최대 무역항은 요코하마로, 상대국은 영국이 중심이었습니다.

개국 당초 외국과 금은의 교환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금화(고반)가 대량으로 외국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막부는 이것을 막기 위해 고반의 질을 떨어뜨려 금의 유출을 막았지만 물가는 급속하게 올라 유채 기름 등의 수출품 뿐 만 아니라 생필품이 부족하여 물가가 올랐습니다.

무역은 이때까지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사는 무역 상인에게 팔려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동일본을 중심으로 생사 생산이 성행했습니다. 영국산 싸고 질 좋은 면직물이나 면사의 수입은 일본 내 생산지나 면직물 경영에 타격을 주었지만 면직물업자 중에는 수입한 값싼 면사를 사용하여 수입면직물에 대항하는 이도 나타났습니다.

(사회개혁 붐기와 좋지 아니한가)

외국과의 무역과 화폐 개조에 의해 쌀과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생활고에 부닥친 민중이 늘어나고 막부를 향한 불만이 높아져 갔습니다. 민중은 부채 탕감과 팔아넘긴 경지 반환, 생필품 가격 하락 등의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에도와 오사카 주변에서 대규모로 사회 개혁 붐기나 파괴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좋지 아니한가.” 라며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움직임은 막부의 권위를 저하시키게 되었습니다.

(7.에도 막부의 멸망) 대정봉환 직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토막의 움직임)

1863년에 존왕양이운동의 중심이었던 죠슈 한이 조정을 움직여서 막부에 양이의 실행을 약속받아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죠슈 한은 출선하여 칸몬 해협을 지나는 외국 배에 포격을 가하고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양이운동의 고조를 염려한 막부는 조정의 지지를 얻어 교토로부터 양이를 주장하는 쿠게와 죠슈 한사를 추방했습니다.

1864년, 죠슈 한은 교토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교토를 공격했지만 고쇼를 지키는 아이즈 한, 사츠마 한 등과 벌인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막부는 여러 한에 명을 내려 죠슈 한으로 출병하였고 막부에 종속시켰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국 함대는 연합하여 죠슈 한에 보복 공격을 가해 시모노세키 포대를 점령했습니다. 구미의 군사력을 실감한 죠슈 한의 키도 다카요시 등은 열강에 대한 가능한 강한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막부를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부를 따르는 자세를 보이고 있던 죠슈 한에서는 시모노세키에서 죠슈 한사 다카스기 신사쿠가 거병하여 키도 다카요시와 함께 한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사쓰마 한에서도 나마무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사츠에이 전쟁에서 영국 함대에게 가고시마를 공격받자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실권을 장악하고 영국에 접근하여 군비를 강화하였습니다.

1866년, 도사 한 출신 사카모토 료마는 사쓰마와 죠슈 한 사이를 중개하여 삿쇼 동맹을 맺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막부는 다시 죠슈 한을 공격했지만 출병한 한의 전의가 낮아 각지에서 패배한 막부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죽음을 이유로 정전했습니다.

(대정봉환과 왕정복고)

이러한 정세 속에서 15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1867년 도사 한의 추천으로 정권을 조정에 반환하여, (대정봉환), 260여년을 이은 막부는 멸망하였습니다. 요시노부는 막부를 대신하여 신정권 속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만, 같은 해 사이고와 쿠게 이와쿠라 도모미 등이 조정을 움직여 왕정 복고의 대호령을 내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도쿠가와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요시노부에게 관직과 영지의 반납을 명하였습니다.

1868년, 이것에 불만을 가진 구 막부군과 신정부군과의 싸움에서 토바, 후시미 전투가 벌어졌고 신정부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신정부는 에도성을 비게 한 후 군을 진격시켜 다음 해에는 하코다테에서 구막부군을 최종적으로 항복시켜 국내를 평정했습니다. 이처럼 구막부군과 신정부군의 싸움을 보신전쟁이라고 합니다.